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여성 청소년 지원 '행복 박스' 기부

✎ 우정연 기자 | ⓒ 승인 2022.09.07 14:22



박현창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7일 봉평면사무소를 찾아 지역 취약계층 지원 물품을 '행복 박스'로 만들어 전달하고 있다.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7일 봉평면사무소에서 지역 취약 계층 지원 물품을 '행복 박스'로 만들어 전달했다.

'행복 박스'는 공단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생리대와 물티슈, 손 세정제 등을 담아 직접 제작했다.

이번 기부활동은 취약계층 가정의 여성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기부하자는 직원들의 뜻을 모아 진행했다.

박현창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취약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정연 기자 wooj2705@naver.com